



일주문

초안 스님 추모법회 법문
서암 前 조계종 종정은 29일 오전 10시 오봉산 석굴암에서 열리는 초안스님 열반 3주기 추모법회에서 법문한다.

보현문화회관 10돌기념 법문
우용 윤산 학생선원 조실은 26일 오후 7시 보현문화회관 법당에서 열리는 개관 10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교정위원 불교현의회장 추대
현성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회장은 5월 30일 열린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총회에서 불교현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일인도불교학 세미나 참석
도입 동국대 교수는 일본 동경대에서 열리는 일본 인도학 불교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조계종 문화국장 임명
심우 거창포교당 주지는 15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99년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한국에정학회사 강연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20일 한국에정학회에 참석해 '문화시민 의식 개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석불좌상 점안법회
종덕 총부 단양군 청량암 주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석불좌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시찰음식 시연회
선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22일 오후 5시 故운보선 前 대통령 저택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한다.

지장보살 점안법회 법문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원장은 17일 태고종 총남교구 송암사 300 돌담 및 지장보살 점안법회에서 법문했다.

교육원 개원 일일초점
성재도 부산불교교육원 원장은 23일 중앙동 다전에서 부산불교교육원 개원 기념 일일초점을 연다.

'나' 보다는 주변 먼저 보자

방한 티베트 고승 라마 도봄 툴쿠 스님

"우리는 모든 유, 무정물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생태학적 윤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토회 초청으로 12일 방한한 티베트 고승 라마 도봄 툴쿠(Lama Doboam Tulku, 60) 스님은 동산반야회관 3층 법당을 찾은 불자들에게 '나' 보다는 '주변'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집려 서로의 관계를 외면한 채 이기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은 '고'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보편적인 책임과 새로운 윤리에 관심을 둘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현상보다 동기를 보아야 한다"며 "동기의 성격, 즉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그 동기가 이기적이면,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님은 환경 파괴와 같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이유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끊었다. 라마 도봄 툴쿠 스님은 티베트 망명 정부 티베트 하우스의 원장으로 있으며 티베트의 문화, 역사, 사상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을 돌며 성(聖)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례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 스님은 한국사찰을 돌며 법문과 함께 티베트의 문화와 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한·일 불교문화 교류 촉진 기대"

일본서 첫 공연 영산재 보존회장 인공 스님



"우리의 자랑 스런 전통 불교 문화를 처음으로 일본인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고 한편 사명감 때문에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으로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들이 한국불교문화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는 7월 28일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경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영산재 공연을 갖는 영산재 보존회장 인공스님태고종 봉원사 주지는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에 한국 불교의식 중 가장 웅장하고 성대한 의식으로 손꼽히는 영산재를 공식 공연하게 된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가 인연이 되어 일본문화교류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초청받은 이번 공연은 한달 반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 1700석 표가 완전 매진이 되었다고 일본 사람들의 높은 관심도를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 연역사 스님들이 일본 성명(聖明) 일본식 법명을 40분간 공연하고 이어 한국스님들이 영산재를 80분간 공연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전통 법패가 나란히 무대에 오르는 일도 처음이라 양국의 불교의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색 무대가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산재보존회 준비유자 구해 스님부터 이수자, 전수자 등 스님들과 약사 등 46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동참해 시연회를 갖게 되어 한층 장엄하고 화려한 법석을 보여줄 게 될 것 같다"고 방한 인공스님은 "현재 송암, 벽음, 지광 스님 등의 잇단 열반으로 비어있는 영산재 기능보유자 지정을 보다 세분화해 빨리 지정받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도난문화재 수사전담반 검찰도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감사패 받은 이한성 부장검사

"효율적인 문화재 도난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도 문화재사범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 이한성 부장검사는 검찰 내 문화재사범 전담반의 신설을 특히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대구

문화재 밀거래단을 적발해 낸 공로로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2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당시 사건을 통해 해인사 중건 발원문, 능엄경 언해 등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던 국보급 불교 문화재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2달여 동안 수사하면서 밤잠 한 번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힘들었던 건 증거가 없어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다. 해당 사찰이 도난 사실조차 모를 때는 정말 난감하고 안타까웠다"는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 문화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문화재사범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 사범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김천지방법



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올렸다. 한편 수사담당 검사였던 이두봉 검사와 기립선 검찰주사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밀거래단을 적발해 불교문화재 회수에 공을 세운 전주지방검찰청 최순용 검사도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대불청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는 9-10일 조계사에서 제20차 전국 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900여 청년불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무진장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의 무차법문으로 시작했다. 10일 열린 본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해 백창기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형성 대승사 지장보살 점안법회

형성 대승사(회주 리선행)는 9일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병진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점안법회에서 회주 리선행 법사는 "우리 모두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본받아 열심히 정진하자"고 설했다. 높이 3.3m의 지장보살상은 중국 구화산 김지장스님 상을 본떠 제작했다.



두레생태기행 창립10돌 기념행사

두레생태기행은 14일 송현리법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회원의 밤 및 <생태기행>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모인 이날 기념식에서 김재일 회장은 "불살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환경운동 근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레생태기행은 9월 중 두레생명문화연구소를 개원할 예정이다.



'부산 시민연동축제' 회향법회

부산시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회장 성오)는 12일 코모도호텔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연동축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한마음선원 법행제회, 우바이무용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불교운전자발자회 등은 공로패를, 부산시 문화예술과 염운섭 씨 등은 감사패를 수상했다.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희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초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교육과목: 불교학 개론, 인도불교사, 불교경전개설, 불교문화특강, 원시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의식 실습, 유식사상,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우리말불교의식,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토사상, 선사상

Table with 2 columns: 학년 (1학년, 2학년) and 과목 (1학기, 2학기) with corresponding course names.

Table with 4 columns: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Details include application fees, documents, and exam procedures.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삼매체험선 수행

타력신앙 정리 선 수련법회

불교는 자귀(자신에 귀의함)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 타력 신앙은 왜 필요합니까?
육망생취의 수단으로 기본신앙을 열렬히 하며 신앙생활이라 하고 불교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불교를 한 보람은 이슬에도 저슬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참된 수행의 경험으로 스스로 밝아, 이 밝은 지혜와 광명으로 이두운 주변과 세상을 비추며 불행(佛行)으로 살아갑시다.

- 1. 대상 및 인원: 적정인 주부 청·장·노년 대학생 70명
2. 수련일정 (4박 5일) - 1차: 8월 3일 - 8월 7일, 2차: 8월 10일 - 8월 14일, 3차: 8월 17일 - 8월 21일
3. 접수: 7월 10일까지.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세요.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합니다.)
4. 회비 없음 (뜻 있는 한 분 한 분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 수련이 이루어지게 됨)
5. 신청 및 서류: 1.성명 (한글,한자) 2.주소 (주택,직장) 3.전화 (주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학교(과) 7.참가동기 8.수련회 참가경험 유·무(유 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 1~9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6. 자원봉사신청과 내용: 매 차수별 5명내외
7.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신발 (행선용), 작업용 장갑
8. 문의시간: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월~금). 일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9. 문의: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후원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1) 1구좌 10만원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음) 2) 온라인: 농협 953-17-000706 우체국 510016-01-000548
10. 접수처: 제주시 화북 1동 원명선원
064-755-3322 전승 064-755-0880 홈페이지 www.kebi.com/~k690524

무차도량 한라산 원명선원